

에어졸 산업의 종합 메이커로 독보적 위치 시장 점유율 60%



현 창 수
(주)승일 대표이사

현재 제관업계는 주요 원자재인 석도강판이 2004년도부터 5번 이상 걸쳐 30% 이상의 가격이 인상되는 등 채산성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재가격이 제품가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제관업종의 특성상 원자재 가격 인상은 즉각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소재가격과 납품가격의 현실화는 가장 시급한 선결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인쇄비, 물류비 및 인건비 등도 대폭 오른 상태로 몇몇 중견 제관사들은 부도가 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은 제관산업 뿐 아니라 전체 포장산업 역시 피할 수 없을 터.

제관 및 포장산업이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효율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우수한 경영자원 보유를 통한 독창적 아이디어와 제품,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2월 우성제관(주)(금속포장용기·고압가스용기 제조판매업)과 (주)서울에어졸(가스 충전 제조판매업)을 흡수합병하여 제2의 도약을 맞이한 (주)승일(대표이사 현창수).

(주)승일은 에어졸 압력용기와 핵심 부품인 발부, 악츄에터를 생산, 판매하는 국내 에어졸 산업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1961년에 설립되어 외국 선진기업과의 기술 제휴 및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높은 기술력을 축적함으로써 전 세계 시장에 고품질의 제품을 수출함은 물론 용기 및 발부를 비롯, 충전 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이



▲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주)승일의 제1사업장

르기까지 모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에어졸 제품의 종합 메이커로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1960년대 초 국내 제관업을 포함 에어졸, 휴대용 부탄가스 산업부문은 아주 생소한 사업분야였다. 승일 창업주인 현진국 전 회장(1997년 작고)은 제관, 에어졸 부문 사업의 잠재성을 인지하고 1961년 '승일공업사'란 상호로 처음 서너대의 프레스기계 장비를 갖추고 금속용기 제조사업에 진출하게 된다.

이어 67년 에어졸 라이타

가스관을 개발하고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수요를 승일 제품으로 대체, 에어졸 밸브 제품까지 국산화에 성공시킴으로서 현재 세계 30여개국에 수출하는 회사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승일은 제관, 에어졸, 휴대용부탄가스 연료부문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에어졸 및 휴대용부탄가스 산업의 완전 국산화를 실현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아 일본 등 선진국에 역수출하며 국내 최고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승일은 가스 캔 사업

에서 개발한 기술을 응용해 에어졸 제품의 수탁 생산으로 사업을 다각화했다. 홈키퍼와 같은 살충제, 헤어스프레이와 무스 등 화장품, 방향제와 자동차 청소용품을 만들어 생활용품 회사에 납품한다.

시장 점유율 60%로, 이 분야에 선두주자다.

승일은 국내 최초로 넥크인 캔 생산 성공과 더불어서 용기의 모양을 고객이 원하는 형태(주문제작)로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익스펜더 캔 제관 설비를 완료하여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 레킷벤키

SEUNG-IL

저,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남방CAN, 캄가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에어졸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의 수출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에어졸의 발전은 캔의 이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결점을 극복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선진국의 경우 식용제품에도 에어졸캔을 적용하고 있으

며 안전성과 편리성을 강화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까지 출시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에어졸은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 목적성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향상을 이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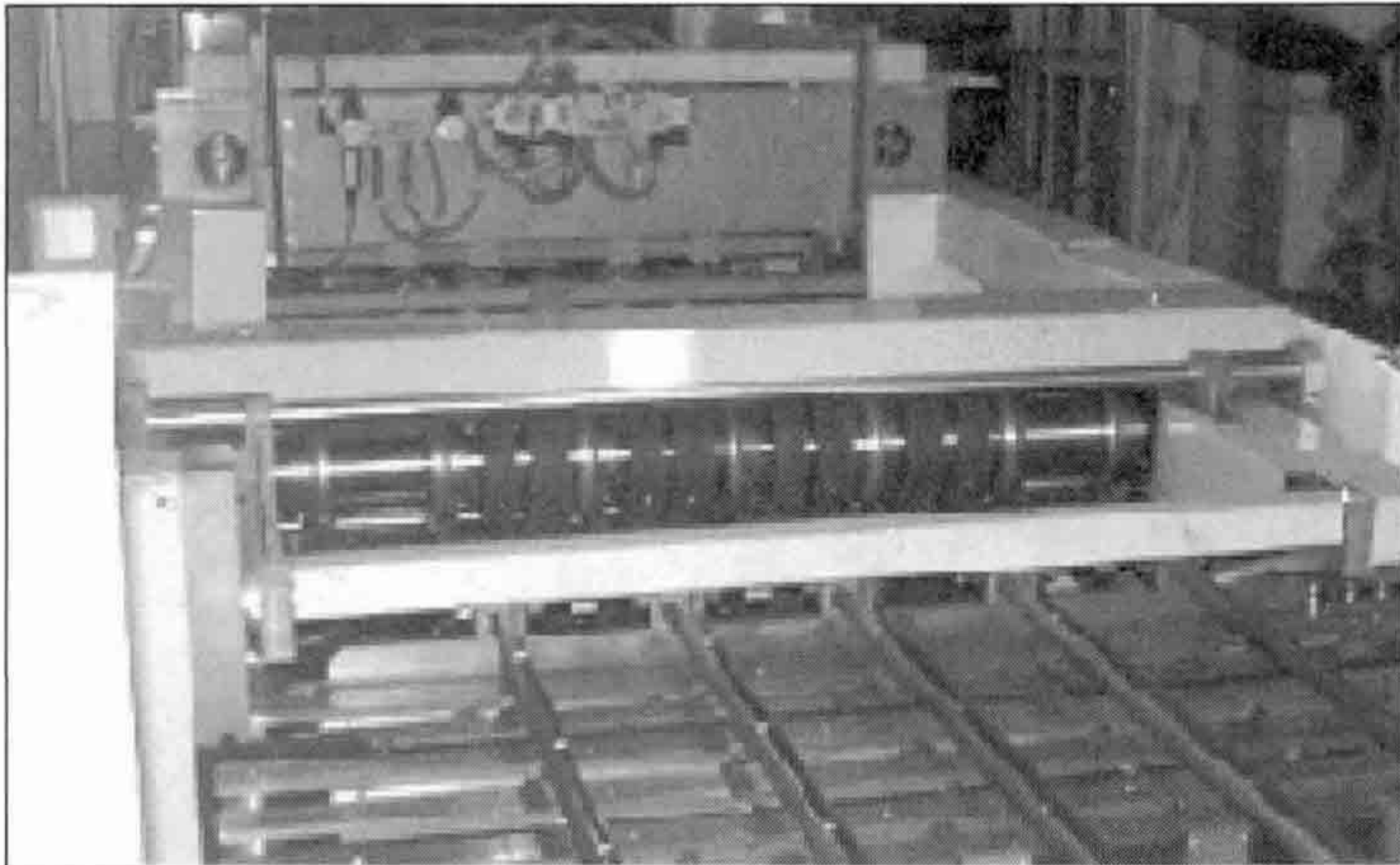
이를 위해 승일은 캔의 경량화, 3피스캔의 2피스캔화, 캔사이즈의 다양화와 형상의 패션화, 환경 대응성의 분사

재 개발(파우치발부를 이용한 분사재사용), 라인의 자동고속화 등을 통해 동종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화장품에서부터 의약외품, 생활용품, 산업용품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에어졸 제품은 그 구조가 다종, 다양하여 입자의 크기, 분사량, 분사 각도 등 제품의 특성 및 용도에 맞는 확실한 기술



▲ (주)승일이 생산하는 에어졸 제품



▲ (주)승일의 생산설비

이 요구된다. 승일은 독자적인 선진 기술과 첨단 시설을 이용, 끝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안전한 에어졸 캔 및 에어졸 밸브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유연한 발상과 풍부한 감성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가고자 한다.

에어졸 산업의 선구자인 승일은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최신의 시설과 첨단 기술로써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여 고객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불량률 제로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택하고 있다.

또한, 품질과 납기에 있어서는 높은 기술수준과 ISO 검사

표준, ERP 시스템 도입 그리고 POP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적용,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여 항상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며 믿을 수 있는 협력업체라는 뿌리깊은 신뢰관계도 구축하고 있다.

창업이후 40여년동안 원자재 가격 인상, 치열한 경쟁 환경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어려움을 극복, 선도기업의 위치를 지켜가고 있는 승일.

승일 뿐 아니라 관계사인 태양산업, 세안산업과 우성제관 등 계열회사 모두 에어졸관, 충전, 연료관, 일반관 등 각 개별 사업군에서 인력, 기계 설비, 기술 및 생산능력, 품질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제관산업은 생산여건과 산업환경의 변화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

승일은 제품의 혁신을 추구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생산효율성 증대를 제고하는 형태로 개별기업의 효율성과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위기상황을 타개할 것이다.

'성장과 수익중시 경영으로 미래 비전 구축'이라는 방침 아래 고객과 환경 중심의 경영에 초점을 맞춰 보다 편리한 생활 문화의 꿈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승일.

승일은 국제 품질 보증 시스템인 ISO/KSA 9001 인증을 획득하여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확립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장수요에 부응할 것이다. 인간존중 및 고객안전이라는 목표를 갖고 21세기 에어졸 문화를 창출하는 개척자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승일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이한얼 기자